

진화적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의 모색*

Toward the Evolutionary Post Keynesian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조 태 희 Jo, Tae-Hee

미주리대-캔자스시티 경제학과 박사과정

이 글은 진화경제학과 포스트 케인지언 입장에서 기업이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진화경제학에서 기업은 현실의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며 장기성장과 생존을 추구하는 실체이자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착근된 조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원리를 조망하는 진화적 기업이론에는 기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미비하다. 이러한 이론적 결여는 진화적 원리를 토대로 하는 포스트 케인지언 미시경제이론으로 보완될 수 있다. 두 접근법의 현실주의적 결합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주의적, 관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특히 기업의 가격설정과 투자결정 메커니즘이 상호의존적이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규명한다. 나아가서 진화적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은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핵심 주제어: 기업이론, 진화(제도)경제학,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

* 이 논문은 2006년 4월 AFIT(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Thought) 학술대회(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와 2006년 6월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 시작단계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프레데릭 리(Frederic S. Lee) 교수, 존 헨리(John F. Henry) 교수, 오타와 대학의 김정훈 학형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학회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I. 머리말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전형적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은 거대기업으로 발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독과점 산업이 출현하였다. 거대기업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운영하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여러 공장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결합이윤극대화(joint profit maximization)를 추구하고, 평균가변비용이 일정하며, 유희설비를 갖는다는 특성이 있다 (Baran and Sweezy 1966: 15, Eichner 1976: 3, 131, 133, Lavoie 1992: 97-98, Lee 1998).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들은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지배적인 세력’이자 ‘선도적 행위자’이다(Veblen 1904: 2-3, Dugger 1989: ix).

그러나 현대경제학에서 기업이론은 이러한 기업의 진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현대경제학에 만연하는 인위적인 ‘미시·거시 이분법’이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체론(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근거한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를 통해 미시·거시 이분법을 극복하고 있으나, 종합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비주류경제학의 이론적 접근은 거시·구조 지향적 접근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거시 편향적 접근법은 다중의 미시적 관계와 경제주체의 전략적 행위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미시 편향적 접근법은 경제와 사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기업이 행하는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기업이론의 현실성을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아우르는 총체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 글은 기업이론과 현실기업의 괴리로 발생하는 이론의 제한성과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진화적 제도경제학(이하, 진화경제학)¹⁾과 포스트 케인지언²⁾ 경제이론의 접목을 검토한다. 여러 비주류경제학 중에서 특별히 진화경제학과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을 선택한 이유는 두 학파의 세계관(철학과 방법론)이 공유되고 있어 상호보완적이며, 이 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실주의적

1) 이 글에서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과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은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사상적 전통을 따르는 경제학을 지칭한다. 유럽의 제도학과 경제학은 진화경제학과 구별되는 경향이 있으나, 베블렌의 영향이 강한 미국의 제도경제학은 진화경제학과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제도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체론에 입각한 신고전학파의 진화(게임)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생물계의 적자생존원리를 그대로 사회에 적용시킨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도 구별된다. 한편 코즈(R. Coase), 윌리엄슨(O. Williamson) 등에 의해 발전된 신제도경제학은 신고전파의 방법론적 개체론의 틀 속에 있어 (구)제도경제학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포스트 케인지언(Post Keynesian)경제학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으나 이 글에서는 스타피안(Sraffian)과 칼레츠키안(Kaleckian)과 근본적 케인즈주의자(fundamentalist Keynesian)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27, No. 3, 2005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트 케인지언 논쟁과 라브와(Lavoie 2006)를 참고하라.

관점에서 결합될 때 보다 유용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현실주의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사회과학 방법론이자 철학인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사회과학이론의 현실성을 의미한다. 즉, 현실주의 이론은 세계관(존재론과 인식론)의 현실성, 이론의 현실성(현실설명력), 방법의 현실성(역사적·실증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이론이다. 또한 이 글이 미시·거시 통합적 분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미시적 현실주의(micro-realism)를 강조하고자 한다. 미시적 현실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의 삶은 미시적”이고 구체적 현상이므로 “거시적 구조는 미시적으로 해석되어야만 어떻게 사회구조가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다 분석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Collins 1988: 244).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현대자본주의 기업의 특성과 개념을 살펴본다. 특히 베블렌의 『기업이론』(*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에 나타난 접근법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III절에서는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을 개괄한다. IV절에서는 기업의 가격설정과 투자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적 기업행위가 진화적 기업이론과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이 갖는 함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한다. V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진화적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핵심적인 논의를 요약한다.

II. 진화경제학의 기업이론

진화경제학의 전통에서 기업은 다양한 개별 경제주체들, 즉 경영자, 소유주, 노동자가 위계적 질서로 구성된 조직(organization)이자, 역사적 시간과 구체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적응하며 진화하는 실체이다. 기업에 소속된 개별주체들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개별 주체들의 집합은 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주체를 생성시키며, 기업 또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유기적 조직이다. 집단적 행위자로서 자본주의 기업은 금전적 이익(pecuniary interest) 실현을 목표로 상품생산을 담당하고 시장교환에 참여한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화폐이윤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Veblen 1904: 20, 50-51).

기업이 역사적 시간과 구체적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경로의존적이며 제도적으로 굳어진 습관이나 관습에 따른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는 누적인과관계(cumulative causation)를 따른다. 이러한 진화적 세계관에서 신고적학파적 균형개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경제학의 입장은 경제제도를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한다. 개별 경제단위로서 기업은 시장, 산업, 지역사회, 국민경제 안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이 때 기업은 유리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특정 산업과 시장에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전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사회관계와 권력관계도 반영한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동기와 목표를 갖는 경제주체나 사회전체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한다. 베블렌에 따르면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라는 제도가 갖는 작동원리와 사회의 작동원리 사이의 모순관계 때문이다.

“현대 기업에서 경영자의 이익은 계속기업의 궁극적 목표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 관리라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할 필요도 없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감안한다면 기업은 최대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반면 계속 기업으로서의 이익만을 감안한다면 기업은 기업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에 최대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이익과 소유주들의 이익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사고파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은 생산품의 산업적 효율성과 유용성을 요구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생산품의 시장성을 요구할 뿐이다. 또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기업의 경영자들과 소유주들은 기업자본의 시장성을 요구한다”(Veblen 1904: 157-158).

이처럼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은 사회적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상품생산과 거래를 억제하기도 한다.³⁾ 이러한 관점은 개별 기업의 이기적인 생산과 교환행위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기업 활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순박한 시장이데올로기와 대비된다.

이기적인 기업활동은 사회전체의 작동원리와 모순되기도 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베블렌이 『기업이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다른 사회적 세력들을 이끌어가는 지배적 세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경기변동과 성장을 가져오는 경제적 세력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적·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가 산업화 될수록 기업원리가 사회원리를 지배하게 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금전추구원리가 확산되고, 상품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표준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을 창조적이고 의미있는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의 삶이

3) 베블렌은 이를 ‘산업 사보타주’(industrial sabotage)라고 부른다 (Veblen 1969: 354).

경제적 원리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Veblen 1904: 14-15, Cornehls 2004: 33).

요약하면,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의 행동 동기와 원리에서 출발하여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의 문화적 변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다룬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화경제학의 기업이론은 자본주의사회 전체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화적 기업이론은 ‘정치경제학’으로서의 고전학과 경제학(특히 맑스경제학)과 같이 인위적인 미시·거시 이분법이 필요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과 생산함수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신고전과 기업이론에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장하준 1999: 74). 이처럼 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이 가능한 것은 진화경제학의 세계관이 다윈의 진화원리⁴⁾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근·김창욱 2005: 123).

그러나 베블렌의 ‘큰 그림’은 기업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베블렌의 『기업이론』에서 투자, 저축, 가격설정, 생산, 판매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기업 자체 보다는 기계화 과정(machine process) 혹은 기술발전이 자본주의 사회변화의 방향과 운동방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구조와 동인을 제공한다는 베블렌의 관점 때문이다 (Veblen 1904: 1).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 때문에 일부 진화경제학자들은 베블렌의 기업이론을 비판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호지슨은 “베블렌이 [기업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계화 과정에서 시작하여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문화변동이론으로 귀결된다...[진화적 원리를 따르면] 기계화 과정 그 자체에 구체적인 행동과 사고를 가져오는 내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Hodgson 2004: 208, 221).

하지만 베블렌의 『기업이론』을 현실 자본주의 기업과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여전히 유효한 분석틀로 이해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베블렌의 접근법 자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이러한 접근법에 결여된 부분을 채워넣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진화적 기업이론이 다음 절에서 살펴볼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 분석으로 보완될 때 그 완결성과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

베블렌과 제도학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진화적 기업이론은 신고전과 경제학의 기업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특히, 진화적 기업이론에 내재되어

4) 제도경제학의 진화적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현상(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결과는 자연법칙처럼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다 (Non-teleology). 2) 한 존재는 다른 존재로 환원될 수 없다 (Emergentist materialism). 3) 개별 행위자는 사회에 착근되어 있다 (Embeddedness). 4) 사회적 메커니즘은 연속적이고 (Continuity), 5) 누적적·절차적·경로 의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Path-dependency, cumulative causation). 보다 자세한 논의는 호지슨(Hodgson 2004: 95-97) 참조.

있는 진화적 원리, 즉 비가역적 시간, 불확실성, 누적 인과관계, 경로의존성, 사회착근성, 습관과 관습에 의존한 의사결정은 많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도 공유하는 방법론적 토대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는 두 학파 사이에 자연스러운 이론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은 비판적 실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론(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틀)은 대상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론)(epistemology)을 전제로 하고, 인식은 세계관(존재론, ontology)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이론의 성격과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Lawson 2003: 12, Archer 1995: 20-23).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세계관과 방법론은 여러 포스트 케인지언 학자들의 이론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녹아들어있다. 대표적으로 아이크너(Eichner 1976, 1991), 라브와(Lavoie 1992), 리(Lee 1998), 던(Dunn 2001, 2002) 등이 있다. 한편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은 진화경제학의 영향뿐만 아니라 칼레츠키(Michal Kalecki), 민스(Gardiner Means), 앤드류스(Philip Andrews) 등의 영향도 받은 바 크다.

특히, 칼레츠키와 아이크너는 신고전과 경제학을 극복하는 대안의 미시경제학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거시경제동학과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며,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미시-거시 분석 사이의 환원주의(reductionism)를 거부한다. 즉 동질적 행위자(혹은 대표적 행위자), 완전경쟁, 합리적 선택, 신축적 가격 조정을 가정하는 대신 기업의 독점도(degree of monopoly), 거대기업(megacorp), 경로 의존성과 같은 현실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전략적 가격설정과 투자결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분석틀은 앞서 살펴본 진화적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의 행동주의적, 전략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Eichner 1976: 5, Milberg 1992: 8, Shapiro 1992).

칼레츠키와 아이크너에 따르면 제조업부문의 상품가격은 기업이 장기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생산비용을 감안한 이윤마크업을 설정함으로써 결정된다 (Eichner 1976: 196, 197, 200). 따라서 가격설정, 투자, 자원조달은 기업이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전략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활동과 거시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Dunn 2002: 74).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은 과점적 산업구조, 단기평균가변비용 일정, 완전탄력적 단기기업공급함수, 이윤과 생산설비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 투자수요와 밀접히 관련된 비용할증 가격결정, 역사적 시간과 불확실성하에서 기업 의사결정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Eichner and Kregel 1975: 1305-1309). 그러나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이 신고전과 기업이론의 '블랙박스'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속에 있는 기업의 조직과 행동주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진하다 (Dunn 2001: 250). 이

러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의 이론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기업의 주요한 전략적 행위인 가격설정과 투자결정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확장할 것이다.

IV. 기업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가격설정과 투자결정

머리말에서 정의한 현실주의에 따르면 기업이론은 기업 행위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미시·거시 통합적인 기업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시·거시 통합적인 접근법이 미시적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 거시경제적인 현상을 거시편향적인 분석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두 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진화적 기업이론과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이 이러한 이론의 현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구조적 기업분석에서는 기업간 경쟁관계(독과점 구조), 기업 내부조직 구조, 전략적 의사결정이 간과된다.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이 산출량 결정과정의 거시경제적 맥락으로 환원되거나, 경제시스템에 내구적 경향으로 존재하는 자본축적 과정 속에서 설명된다 (Eatwell 1983: 126). 특히 후자의 입장은 스라피안 장기접근법 (Sraffian long-period approach)을 대변하며, 여기서 가격이론은 장기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로 인해 가격설정과 투자가 기업의 전략적 행위라는 미시적 메커니즘이 간과된다.

이러한 거시·구조 편향성은 비주류 경제학자들에게 미시이론과 미시정책 이슈들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화폐, 금융, 인플레이션, 고용, 경기변동, 성장 등의 거시 이슈들에 치중하게 한다 (Lee 2005: 26). 이러한 평가는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미시적 이론과 정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용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신고전학파의 미시적 기초 (microfoundations)를 극복하는 타당한 비주류 경제학의 미시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에서 살펴볼 가격설정과 투자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비주류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미시·거시 일관적인 기업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과적 메커니즘(가격설정, 가격, 투자, 임금결정, 고용, 생산)과 구조(법적·제도적 구조, 의사결정 구조, 비용산출 구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Lee 2005: 34). 이 글에서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인 가격설정과 투자결정에 대해 살펴본다.

1. 가격설정 메커니즘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가격(price)과 가격설정(pricing)을 명확히 구분한다. 가격설정이론은 실제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단기적 분석이고, 가격이론은 상대가격체계에 대한 장기분석이다 (Eichner 1991: 337-338, Downward 2000: 217). 전자는 마크업 가격설정원리를 바탕으로 한 칼레츠키안의 접근법이고 후자는 스라피안의 장기 접근법이다.

최근 포스트 케인지언 가격설정이론의 발전은 보다 현실주의적인⁵⁾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가격과 가격설정 메커니즘이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된다. 예를 들면,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경제전체의 투입산출모형으로 표현되는 화폐생산경제 속에서 분석되고, 현실의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지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의해 관리된 가격이 기업의 장기 성장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자본주의 기업이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경제주체가 아니라, 순차적인 생산과정과 상품교환과정에 참여하는 전략적인 계속기업이며, 가격의 일차적인 기능은 기업의 재생산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Lee 1998: 227-229).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규명된 기업의 가격결정원리는 마크업 가격결정, 표준비용 가격결정, 목표수익률 가격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크업 가격결정 원리는 기업이 표준산출량 수준에서 상품 생산에 필요한 평균총비용을 할증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Lee 1998: 205). 이 원리는 이윤마크업 결정이 기업의 독점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상품이 시장에서 교환되기 이전에 상품가격이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_j = [NEATC_j][1 + r_j]$$

(NEATC는 표준기업평균총비용(normal average enterprise average total costs)이고, 표준산출량을 상정한 상태에서 j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의 직접비용(direct costs), 작업장비용(shop expenses), 기업운용비용(enterprise expenses)을 포함한다. r 은 기업이 설정한 이윤마크업이다. 직접비용에는 원자재구입비용과 노동비용이 포함된다. 작업장비용은 상품생산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생산라인의 관리와 감독에 필요한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 기업운용비용은 기업운영과 제품판매 등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둘째, 표준비용 가격결정원리는 개별 비용항목에 대해 마크업을 한다는 점에서 마크업 가격결정과 다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5) 가격과 가격설정에 대한 대표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연구로는 리(Lee 1998)와 다운워드(Downward 1999)가 있다. 이들은 비판적 실재론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리는 광범위한 양적·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격결정과정을 규명한다.

$$p_j = [NEADC_j][1 + g_j][1 + h_j][1 + r_j]$$

(NEADC는 표준기업평균직접비용(normal enterprise average direct costs), g , h , r 은 각각 작업장비용마크업, 기업운용비용마크업, 이윤마크업)

셋째, 목표수익률 가격결정원리는 기업이 보유자산의 기대목표수익률을 결정한 후 표준평균총비용을 마크업하여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Lee 1998: 205).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j = [NEATC_j][1 + r_j] = [NEATC_j][1 + \frac{TRR \times VCA_j}{f \cdot q_{jn} \cdot NEATC_j}]$$

(r 은 이윤마크업, TRR은 목표수익률, VCA는 보유자산가치, f 는 매 회계연도의 생산횟수, q_m 은 표준산출량플로우)

결론적으로 가격결정의 세 원리는 기업의 산업내 독점도 및 내부비용 산출방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비용은 기업 내부의 조직구조와 기술수준을 반영한다. 가격결정원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이론적·현실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가격은 기업의 재생산과 장기생존과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결정된다. 둘째, 가격설정이 표준산출량 플로우와 표준비용을 상정하여 결정되므로, 가격은 실제 비용과 생산물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동에 상관없이 상당기간 안정적이다. 셋째, 시장청산가격이 아니라, 기업재생산 가격이다 (Lavoie 1992: 141-144, Lee 1998: 208-209, Downward 1999: 7-8).

2. 투자결정 메커니즘

기업이 결정하는 상품가격은 투자를 통해 기업의 장기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가격과 투자결정은 기업의 진화적, 행동주의적,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케인즈와 대다수 포스트 케인지언 투자이론은 이러한 미시적 현실에 조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기업가들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판매, 과거의 투자, 실제요소비용, 이자율, 이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본의 한계효율(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과 화폐이자율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투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본의 한계효율과 유동성선호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투자율과 유효수요가 불안정하게 된다 (Keynes 1936: 12장, 17장). 이렇게 심리적 요인들의 가변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거시경제에서 화폐와 금융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투자는 개별기업의 여건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제도적·역사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더구나 투자는 화폐·금융적 요인뿐만 아니라 실물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Crotty

1990, 1992; Lavoie, Rodriguez and Seccareccia 2004).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다음 절에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개별기업 단위의 투자 결정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는 점은 개별기업의 투자가 해당 기업의 장·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결정은 ‘목표설정 → 계획 → 제안 → 평가 → 선택 → 자원조달 → 실행 → 수정’ 과정을 거친다.

(1) 목표 설정과 동기

기업은 장기성장과 생존을 위해 금전적 목표와 함께 비금전적 목표를 가지기도 한다 (Heller 1951, Barna 1962, Eichner 1976, Rosenbelt 1980, Crotty 1990). 기업의 목표는 이해관계자(소유주 혹은 주주, 전문경영인, 노동자, 노조, 고객, 지역사회)들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구체화 된다. 만약 배당금의 극대화를 바라는 주주들이 다른 이해관계자들보다 우월한 세력을 형성한다면, 기업의 투자행태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높은 레버리지(leverage) 비율이 나타날 것이다. 가령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경영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면 장기적인 자본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R&D)를 실행할 개연성이 높다 (Crotty 1990: 535-537). 그러므로 투자이론은 기업의 조직구조(소유와 경영의 분리, 노조의 영향력 등)를 감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태적 이윤극대화 과정과 달리 현실세계의 기업은 진화적 속성을 구체적 목표 설정에 반영한다.

(2) 계획과 제안

투자계획은 기업 내부적으로 제도화된 행동양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기업활동이다. 개별기업 단위의 투자계획은 대체로 상급경영자, 이사회, 기획부서에 의해 입안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바나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통 2-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데 그 이유는 물리적 자본의 장기수명, 회계 절차, 자본조달 조건 때문이다 (Barna 1962). 파이크와 울페는 2년 이상의 장기 자본예산편성(capital budgeting)과 기업의 규모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Pike and Wolfe 1988).

장기계획이 확정되면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은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경우 상급경영자들이나 이사회에서 새로운 투자계획을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기업내부 사정을 잘 알고 시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장기계획에 조용한 투자는 M&A나 새로운 공장설립 등과 같이 중요한 투자계획이다. 이러한 장기적 투자는 사업의 다각화나 거대화라는 목표 하에 입안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일상적이고 소규모 투자에 대한 결정은 대개 하급관리자들이 결정한다 (Rosenbelt 1980). 페티 외(Petty *et al.* 1975)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본사의 중앙기획부서, 지사의 계획부서, 개별 공장단위에서 제안 되는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투자의 최초 입안주체로서 중앙기획 부서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이 거대화·다각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 평가와 선택

제안된 투자계획은 내부적·외부적으로 조달 가능한 실물·금융 재원의 여부에 따라 실행가능성이 평가된다. 이때 기업 경영자들은 양적·질적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의 잠재적 수익성을 평가한다.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준은 필요성, 유예성, 자금 회수기간, 회계수익률,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수익성 등이다. 이 중에서 내부수익률과 자금회수기간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준으로 보고된다 (Heller 1961, Petty *et al.* 1975, Brigham 1975, Pike 1983, Pike and Wolfe 1988). 또한 기업들은 질적 기준보다 양적 기준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ike 1983, Pike and Wolfe 1988). 그러나 기업의 이미지, 고용자들의 안전과 의욕 등 질적 평가기준들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Petty *et al.* 1975). 이렇게 기업이 투자를 평가함에 있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하게 고려된다는 것은 개별 기업의 전통적 관리기법, 사안별로 특수한 조건, 경영자의 선호 등이 실제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의한다.

흔히 현실세계에서 기업가들은 실물부분과 금융부분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투자위험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위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가들이 인식하는 위험이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40%),⁶⁾ 수익률의 변동 (30%), 불확실한 자본회수기간 (10%), 불확실한 시장여건 (7%), 새로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느끼는 불안감 (5%), 불확실한 성공률 (4%)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기업가들이 잠재적 위험(자본회수기간, 할인율, 수익률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확실성 등가(certainty equivalent), 민감도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Petty *et al.* 1975, Pike 1983, Pike and Wolfe 1988).

이처럼 개별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미리 투자계획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수량적 기법들은 투자를 결정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기업가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 시장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신뢰도가 경우에 따라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Barna 1962).

(4) 자금조달

투자계획이 결정되면 기업은 내부자금이나 외부차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한다. 화폐, 불확실성, 금융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케인즈와 많은 포스트 케인지언들에게는

6) 괄호안의 백분율은 페티 외(Petty *et al.* 1975)가 설문으로 조사한 기업관리자 109명의 응답 비율임.

기업이 주로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개별기업의 투자가 외부 금융시장의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살펴보면 내부자금조달이 외부차입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르벳과 젠킨슨의 조사에 따르면 1974-1990년 사이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의 내부자금조달 비율이 각각 69.9%, 78.9%, 96.1%, 93.3%이다. 게다가 기업의 혁신과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에 민감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Corbett and Jenkinson 1997: 74). 메이어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1970-1985년 기간 동안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에서 실물투자를 위한 순외부자금조달 (대출, 저축, 단기 증권 등) 비중이 각각 37%, 12%, 42%, 5%,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Mayer 1998: 1174).

내부자금의 중요성과 관련된 포스트 케인지언의 이론적 연구는 아이크너(Eichner 1976)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아이크너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여건이나 외부자금에 대한 접근성은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거대기업은 [유휴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언제라도 설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금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만 극도의 신용경색기간 동안에만 투자를 잠시 유예할 뿐이다” (Eichner 2000: 109). 말하자면 거대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금을 내부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맺고 있는 밀접한 경제적·사회적 관계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수정과 환류

투자계획이 실행된 후 경영자들은 투자가 예상된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한다. 기업이 비가역적 시간 속에서 운영되는 계속기업이라는 특성은 투자가 기업의 장기적 목표와 전망에 따라 실행되고 수정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실행된 투자가 성공적이지 못했을 경우 기업은 새로운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기간동안 발생할 기업의 내부적·외부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투자가 매 기간(생산기간이나 회계연도)마다 동일하게 수행될 가능성도 매우 적다. 그러한 여건의 변화로는 조직상의 변화, 개별 시장에서 판매량의 변화와 거시적 총산출량의 변화, 법적·제도적 변화, 자본비용의 변동, 기술발전, 소비심리의 변화, 인플레이션, 기대경제성장률의 변동, 경쟁기업의 행태, 국제경제여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의 수정과 환류 과정은 투자 메커니즘이 거시적·구조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 특수한 역사적·경험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3. 가격설정과 투자

가격설정과 투자는 기업이 장기성장과 생존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다. 관리가격은 기업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정되고, 투자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두 메커니즘은 상호의존적이고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의 기업을 이론화함에 있어 가격설정과 투자 메커니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위계적 구조, 제도적 의사결정과정, 거시경제 여건, 사회적 규범 등이 가격설정과 투자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진화적 기업이론과 포스트 케인지언 미시경제이론이 상호보완적이고, 현실적인 기업이론을 확립하는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미시적 기업이론이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V. 진화적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의 거시경제적 시사점

경제현상을 통합적·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하는 현실주의 방법론을 따르면, 개별 경제단위와 경제현상의 수량적 크기, 위치, 심리적 정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 사회관계와 총체적 시스템 사이의 ‘연계’, 혹은 행위와 환경(구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Archer 1995: 11). 따라서 기업은 다른 경제주체들과 다중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거시적 구조 속에 위치하며, 기업 활동은 경제시스템을 미시적으로 변형하고 재생산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생성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합은 전체기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행위들의 산술적인 합만으로 거시경제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 기업이론은 기업의 미시적 활동과 관계들로부터 시작해야하고 이 활동과 관계들이 거시구조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창출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접근법은 개별기업 활동과 경제시스템 전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기업의 가격과 투자 결정 행위는 거시경제 현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서 개별기업은 이질적인 상품과 서비스, 생산과정, 기술 등에 의해 분류되고, 이들 기업이 속한 시장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 기술의 습득과 발전, 기술을 통한 시장의 주도를 통해 진화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거시경제 동학의 원동력은 기술발전과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진화와 적응, 선택 과정을 주도하는 자본주의 기업이다. 이러한 진화적·미시적인 접근법은 기업이라는 주도적인 개별주체의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거시경제의 동학을 밝힌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케인즈의 거시경제분석 뿐만 아니라, 스라피안의 장기적·구조적 분석과도 대비된다.

미시적 접근법이 거시경제 분석에 있어 갖는 시사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전체의 성장률 저하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분석을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앞서 가격설정 메커니즘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업은 표준산출량 수준에서 평균총비용을 할증하여 상품가격을 결정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과 재생산을 위해 상품가격을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만약 상품가격이 불안정하다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투자를 통한 성장과 재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독점화 될수록 이윤마크업과 상품가격은 더욱 안정적이고, 가격조정 대신 축적된 생산설비의 가동률을 조절함으로써 경기의 변동에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독과점화된 산업에서는 항상 유희설비를 보유하고 기업의 순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유효수요가 감소하고, 산출과 고용이 감소하므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이 미래수익률에 대해 비관적 기대를 함으로써 투자가 더욱 감소하여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Mott 1992: 119-120, Lee 1998: 192).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민간 기업들이 신규투자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평균이윤마크업을 증가시킨다면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이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유효수요 감소, 총생산 감소, 고용 감소, 소득분배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 (Kriesler 1996: 66). 즉, 소득분배와 장기성장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자본가가 결정하는 이윤마크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의 독점화가 초래하는 유효수요와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독점화를 억제하고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지출의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개별 산업에서 투자율은 독과점 기업의 이윤마크업을 통해 조정할 수 있고, 정부투자지출은 정부의 의지에 좌우된다. 기술혁신 또한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를 관리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 (Eichner 1976: 222).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은 전략적 산업정책, 총수요 관리정책, 독점화를 억제하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소득분배는 근본적으로 자본가가 결정하는 이윤마크업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균등 소득분배의 문제는 사후적인 부의 재분배보다는 독과점을 규제하거나 이윤마크업을 조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VI. 맺음말

이 글은 진화경제학과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 입장에서 기업이론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베블렌으로부터 시작한 진화적 기업이론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이 장기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조직적으로 구성된 계속기업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전학과 기업이론의 기본 전제인 시공을 초월한 이윤극대화 원리가 부정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원리를 조망하는 진화적 기업이론은 기업활동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여는 포스트 케인지언 미시경제이론으로 보완될 수 있다. 나아가서 포스트 케인지언 기업이론은 전략적, 행동주의적, 관리적 기업활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가격설정과 투자결정 메커니즘이 상호의존적이며,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행위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한편, 기업이론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는 달리 미시적 접근법은 현실의 개별 기업 활동과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시적 접근법은 제도학과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이론에서 제기하는 기업재생산가격, 수요공급법칙의 부정, 관리가격원리, 경제과정에서 권력 관계의 중요성 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참고문헌

- 이근·김창욱, 2005, “경제는 기계보다는 생명체에 가깝다”, 박만섭 엮음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서울: 이슈투데이
- 장하준, 1999,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향하여”, 『사회경제평론』 13호
- Archer, M.,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an, P. and Sweezy, P., 1966, *Monopoly Capital: An Essay on the American Economic and Social Ord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Barna, T., 1962, *Investment and Growth Policies in British Industrial Fir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gham, E., 1975, “Hurdle Rate for Screening Capital Expenditure Proposals”, *Financial Management*, Vol.4, pp.17-26
- Collins, R., 1988, “The Micro Contribution to Macro Sociology”, *Sociological Theory*, Vol.6, No.2, pp.242-253
- Corbett, J. and T. Jenkinson, 1997, “How is Investment Financed? A Study of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Vol.65, pp.69-93
- Cornehl, J., 2004, “Veblen’s Theory of Finance Capitalism and Contemporary Corporate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XXXVIII, No.1, pp.29-58
- Crotty, J., 1990, “Owner-manager Conflict and Financial Theories of Investment instability: A Critical Assessment of Keynes, Tobin, and Minsky”,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12, No.4, pp.519-542
- Crotty, J., 1992, “Neoclassical and Keynesian Approaches to the Theory of Investment”,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14, No.4, pp.483-496

- Downward, P., 1999, *Pricing Theory in Post Keynesian Economics*, Cheltenham: Edward Elgar
- Downward, P., 2000, "A Realist Appraisal of Post Keynesian Pricing Theor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4, March, pp.211-224
- Dugger, W., 1989, *Corporate Hegemony*, New York: Greenwood Press
- Dunn, S., 2002, "A Post Keynesian approach to the Theory of the Firm", in S.C. Dow and J. Hillard (eds), *Post Keynesian Economics, Microeconomics and the Theory of the Firm*, Cheltenham, UK: Edward Elgar
- Dunn, S., 2001, *An Investigation into a Post Keynesian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he Fir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eeds
- Eatwell, J., 1983, "Theories of Value, Output and Employment", in J. Eatwell and M. Milgate (eds.), *Keynes's Economics and the Theory of Value and Distrib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ichner, A., 1976, *The Megacorp and Oligopo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chner, A., 1991, *The Macrodynamics of Advanced Market Economies*, M.E.Sharpe
- Eichner, A., 2000, "Letter to Joan Robinson", July 13, 1971, in Samuels, W. ed., *Research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nd Methodology: Twentieth-Century Economics*, Amsterdam: JAI/Elsevier, pp.107-109
- Eichner, A. and Kregel, J., 1975, "An Essay on Post-Keynesian Theory: A New Paradigm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13, No.4, pp.1293-1314
- Heller, W., 1951, "The Anatomy of Investment Decisions", *Harvard Business Review*, Vol.29, March, pp.95-103
- Hill, C., 1985, "Diversified Growth and Competition: The Experience of Twelve Large U.K Firms", *Applied Economics*, Vol.17, pp.827-847.
- Hodgson, G., 2004, *The Evolution of Institutional Economics*, London: Routledge
- Keynes, J.,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an
- Kregel, J., 1976, "Economic Methodology in the Face of Uncertainty: The Modeling Methods of Keynes and the Post Keynesians", *The Economic Journal*, Vol.86, No.342, pp.209-225
- Kriesler, P., 1996, "Microfoundations: A Kaleckian Perspective", in J.E. King (ed.), *An Alternative Macroeconomic Theory: The Kaleckian Model and Post Keynesian Economics*, Massachusetts: Kluwer, pp.55-72
- Lavoie, M., 1992, *Foundations of Post-Keynesian Economic Analysis*, Edward Elgar.
- Lavoie, M., 2006, "Do Heterodox Theories Have Anything in Common? A Post-Keynesian Point of View", *INTERVENTION. Journal of Economics*, Vol.3, No.1, pp.87-112
- Lavoie, M., G. Rodriguez, and M. Seccareccia, 2004, "Similitudes and Discrepancies in Post-Keynesian and Marxist Theories of Investment: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Vol.18, No.2, pp.127-149
- Lawson, T., 2003, *Reorienting Economics*, London: Routledge
- Lee, F., 1998, *Post Keynesian Price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F., 2005, "Teaching Heterodox Microeconomics", *post-autistic economics review* 31
- Mayer, C., 1988, "New Issues in Corporate Finance", *European Economic Review*, Vol.32, pp.1167-1189
- Milberg, W. (ed.), 1992, *The Megacorp and Macrodynamics: Essays in Memory of Alfred Eichner*,

- Armonk: M.E. Sharpe
- Mott, T., 1992, "What Sense Does Monopoly Capital Require Monopoly? An Essay on the Contribution Kalecki and Steindl", in J.B. Davis (ed.), *The Economic Surplus in Advanced Economies*, Aldershot: Edward Elgar, pp.114-129
- Petty, J., D. Scott, Jr., and M. Bird, 1975, "The Capital Expenditure Decision-making Process of Large Corporations", *The Engineering Economist*, Vol.20, No.3
- Pike, R., 1983, "A Review of Recent Trends in Formal Capital Budgeting Processe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13, August
- Pike, R. and M. Wolfe, 1988, *Capital Budgeting for the 1990's*, Chartered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 Rosenbelt, M., 1980, "A Survey and Analysis of Capital Budgeting Decision Processes in Multi-division Firms", *The Engineering Economist*, Vol.25, No.4
- Shapiro, N., 1992, "The "Megacorp": Eichner's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Firm", in W. Milberg (ed.), *The Megacorp and Macrodynamics*, Armonk: M.E. Sharpe, pp.19-25
- Veblen, T., 1904,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Veblen, T., 1969, "On the Nature of Capital I & II" (1908); reprinted in *Veblen on Marx, Race, Science and Economics*, New York: Capricorn Books, pp.324-386

ABSTRACT

Toward the Evolutionary Post Keynesian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Jo, Tae-Hee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This paper attempts to reformulate the theory of the business enterprise from an evolutionary Post Keynesian perspective. To do so, it is noted that the evolutionary framework illuminates the fact that the business enterprise which is embedded in the larger social context is an organizational going concern seeking long-run survival and growth. The evolutionary framework, however, does not provide us with detailed accounts of business activities. When such a theoretical loophole is filled with Post Keynesian microeconomic theories of pricing and investment, we can better explain strategic, behavioral, and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the enterprise. The present approach also tells us that pricing and investment mechanisms are interdependent and inseparable mechanisms operating to achieve the goal of the enterprise. Furthermore, it sheds light on microfoundations of macroeconomic events.

Key-words: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Evolutionary(Institutional) Economics, Post Keynesian Economics